

[바둑]

폭·풍·질·주

‘조선족 기사’ 박문요

中 랭킹1위 구리 격침

조선족 프로기사 박문요 5단이 중국 랭킹 1위인 구리 9단을 격침시켰다.

박문요는 지난달 26일 중국 기원에서 열린 제21기 중국명인전 도전5번기 2국에서 타이틀 보유자인 구리 9단이 맞아 160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박문요는 종합전적 2-0을 만들어 명인타이를 획득 전망을 밝게 했다.

박문요의 도전 1국 승리는 명인타이를 4연패와 12연승을 기록하고 있던 구리의 연승 행진을 저지한 값진 승리였다.

중국랭킹 5위인 박문요는 또 도요타배 결승전(2009년 1월 6일)에 진출하면서 구리 9단과 결승 3번기를 벌이게 된다.

이번 명인전 도전5번기는 도요타배 결승전을 앞둔 진초전으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계속되는 도전3국은 오는 17일 오전 허난에서 벌어질 예정이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각 3시간, 6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진다. 우승 상금은 10만위안, 준우승 상금은 5만위안이다.

/오광목기자 kroh@



<박지은 9단>

<김혜민 5단>

<이민진 5단>

<이다혜 3단>

<이하진 3단>

정관장배 사냥 ‘5인의 여전사’ 떴다

한국팀, 박지은·김혜민 등 5명 정관장배 3연패 시동

中·日도 대표팀 구성...12일부터 베이징서 한판승부

5인의 여전사가 확정됐다!

한국기원은 지난달 31일 “제7회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 박지은 9단 등 5명의 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이 대회 국내 대표선발전에서 박지은 9단과 김혜민 5단, 이다혜 3단, 이하진 3단이 승리를 거뒀다.

또 이민진 5단은 5회와 6회 대회 우승 공로로 본선시드를 배정받았다. 한국은 모두 5명의 여전사가 본선 무대를 밟아 3회 연속 우승 체비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6회 대회와 비교해 7회 대회 선수구성을 살펴보면 이번대회 역시 정관장배 단골멤버들이 주류를 이뤘다. 이다혜 3단만이 새로운 얼굴로 등

장했을 뿐 나머지 기사들은 6회 대회와 동일한 얼굴들이다.

지난 대회 2연승을 올리며 특출한 역할을 해냈던 이슬아 초단은 이다혜 3단에 막혀 어렵게 다음 대회를 기약하게 됐다.

한국 대표선수가 모두 결정된 가운데 중국과 일본 역시 5명의 본선멤버가 발표됐다. 중국은 루이나이웨이 9단이 빠졌고 마인드스포츠 여자 개인전 금메달의 주인공인 송룡후이 초단과 정관장배 최다연승인 5연승을 달성한 왕상원 초단이 눈에 띈다.

일본은 2004년 제3회 대회에 출전 경험이 있는 스즈키 아유미 3단을 비롯하여 나머지는 6회 대회멤버와 동일하게 짜여졌다.

본선1차전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

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이버으로는 1국부터 4국까지 1차전 모든 대국을 생중계로 방영한다.

세계사이버기원(주), (주)바둑TV가 주최하고 (재)한국기원이 주관하며 한국인삼공사가 후원한다. 한중일 3국의 여류기사 5명이 출전, 연승전 방식으로 진행해 최종 우승국가를 가린다.

각 대국은 제한시간 각각 1시간 초읽기 40초 3회, 덤 6집반으로 진행되며, 우승국에 우승상금 7천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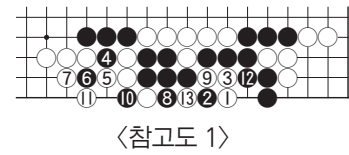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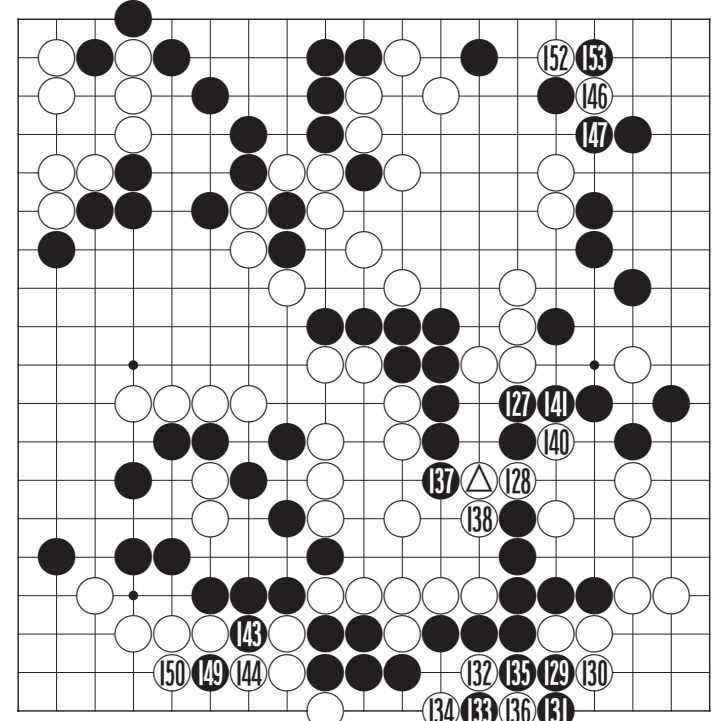
◇각국 출전선수 명단

▲한국=이민진 5단, 박지은 9단, 김혜민 5단, 이다혜 3단, 이하진 3단

▲중국=탕이 2단, 정엔 2단, 왕상원 초단, 송룡후이 초단, 리허 초단

▲일본=아오기 기쿠요 8단, 가토 게이코 5단, 우메자와 유카리 5단, 만나미 카나 4단, 스즈키 아유미 3단

목숨이 걸린 꽃놀이 패
초등부최강부 결승전 8보(127~153)
白 김민후 3단 黑 김태훈 3단
(조봉초 6) (신창초 6)



백 삼로 인해 드디어 흑 대마가 양분되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흑은 129로 맞고 131에 내려서는 구명초석이 있어서 패가 되었는데 이 패는 백의 꽃놀이 패로 여기에서 흑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고 말았다.



그러나 실전의 패도 백은 조금만 이익을 봐도 되는 반면 흑은 목숨이 걸려있어 글자 그대로 백의 꽃놀이 패로 흑이 괴로운 장면이다. 패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백이 우상귀 152로 두 수가 좋은 수로 흑 153이 울며 겨자먹기다. 이 수로는 참고도 2의 1로 막아야 하나 그러면 패감공장이 된다. 김태훈군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구리 9단, 中 랭킹 1위 ‘독주’

랭킹제 도입 이후 최다 1위
창하오 2위...박문요 4위에

점미 떨어졌지만 3위를 차지한 췌예허 7단 역시 소폭 하락하면서 2위 자리를 지켰다.

구리 9단은 2003년 4월 30일 기준 발표된 랭킹에서 처음 1위에 올랐으며, 이번에 1위를 지켜내면서 통산 15번째 랭킹 1위를 기록해 96년 랭킹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최다 1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박문요 9단이 응씨배 8강, 도요타배 결승진출 등에 힘입어 지난 5위에서 퉁지에 7단을 6위로 끌어내리고 지난 보다 24점 상승하면

서 랭킹 4위에 올랐다. 조선족 기사인 박 5단은 최근 1년여 동안 11위→8위→6위→6위→5위→4위를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상승곡선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치우권 8단 역시 지난번 랭킹에서 14위였으나 창기배에서의 선전 등에 힘입어 56점 상승하면서 10위권 내 진입과 동시에 퉁5에 진입했다.

지난해에 이어 제5기 창기배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한 류싱 7단은 응씨배 4강, 후지쯔배 4강, 도요타배 8강 등에 힘입어 지난 12위에서 8위로 뛰어 올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이세돌 부활 날갯짓

응씨배 패배 딛고 명인전 결승 진출 이어

천원전 4강전서도 안조영 꺾고 결승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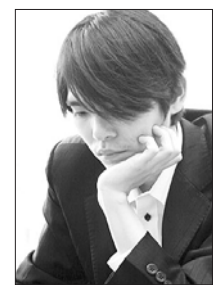
센돌 이세돌 9단의 화려한 부활이 시작됐다.

이세돌은 지난달 29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13기 박카스배 천원전 본선토너먼트 준결승에서 안조영 9단을 132수 만에 불계로 물리치고 결승 진출티켓을 거머쥐었다.

이세돌은 최근 응씨배 패배의 아픔을 딛고 부활의 날개를 활짝 폈다. 지난달 28일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에서 조한승 9단을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한 데 이어 천원전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 준 것.

이세돌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천원전 결승전에서 강동윤 8단과 3번기 승부를 벌인다.

박카스배 천원전은 예선 통과자 12



명과 전기 4강 진출자에게 주어지는 본선시드 4명(왕성진, 강동윤, 안조영, 이세돌) 등 총 16명이 토너먼트를 진행해 결승 진출자를 가렸다.

스포츠조선이 주최하고 동아제약사에서 후원하는 제12기 박카스배 천원전의 제한시간은 각각 1시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있다.

우승상금은 2천만원 준우승상금은 1천만원이며, 본선 모든 대국은 사이버오로와 스카이버둑TV에서 생중계한다.

/이종태기자 jilee@

지지옥션, 바둑수련원 ‘유명산장’ 개장

100명 수용, 강당 등 갖춰

아름다운 자연을 벗 삼아 마음껏 바둑을 둘 수 있는 산장이 문을 열었다.

프로바둑 시니어·여류 대항전을 후원하는 지지옥션이 바둑수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펜션인 유명산장을 개장했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유명산 계곡의 왕소 인근에 자리잡은 유명산장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소회의실 갖췄다.

또 20명 수용 가능한 계곡방갈로와 야외 캠프장, 대형주차장, 취사장도 마련됐다.

체육시설로는 족구(배구)장과 산책로·산림욕장이 있으며 1급수의 계곡낙수, 물놀이가 가능하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수완 롯데쇼핑 옆 최고상권!!
펠리스 타워
수완지구 25,000세대 아파트 입주시작
수완지구 최저분양가 3.3㎡ 당 1,400만원부터

금당부동산
(062)223-7400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웰빙공인중개사
양산택지지구내 GS자이1차 단지내상가
양산택지지구내 4차선 도로옆 자이아파트 등산로 입구

다우공인중개사
523-8114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최고급 무인텔(직영)

대인동상일부동산
(062)223-1140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